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15차 AIPCE 연례회의



글. 김재원
제주중재부 위원



9월 7일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제15차 AIPCE (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 연례회의에 언론중재위원회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우리 일행(필자와 손영준 위원, 홍숙영 위원, 오광건 사무총장, 심영진 본부장, 이홍길 차장보)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3시에 출국했다. 12시간을 비행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투리온 공항(Ben Gurion airport)에 도착하니 현지시각으로 밤

9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마치고, 마중 나온 한국대사관 차량으로 숙소이자 연례회의 개최장소인 힐튼호텔에 도착해 수숙을 마치니 이미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인지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고 시차적응을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다.

9월 8일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함께 미팅

을 가졌다. 이번 참가가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제16차 AIPCE 연례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한다는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유치전략 등을 의논했다. 오후에는 인근 갈릴리 호수 쪽으로 둘러보았다. 시리아 사태로 안전을 걱정했던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텔아비브 시내에는 의외로 평화로웠다. 고층건물이 드물었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건물들이어도 조금씩 그 형태



이스라엘의 황량한 광야

가 달랐다. 도시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짓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듯했다. 시내를 벗어나니 광야(廣野)가 펼쳐졌다. 들판이나 벌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였다. 그 광야에 듽성듬성 있는 나무들을 보니 ‘근성(根性)’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나무들의 뿌리가 메마른 땅에서 수분을 찾아 아래로 넓게 뻗어가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 “성공하다”를 뜻하는 “succeed(sub ‘아래로’ + ceed ‘가다’)”의 의미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이 두 단어의 의미 속에, 형극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바꾸었던 유대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하였다.

9월 9일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로 나오니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들은 눈을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AIPCE에 참석하기 위해 온

접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대로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저녁에는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이 나와 사회자와 좌담 형식으로 기념사를 했는데, 그는 나이가 아흔임에도 유머러스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주 쉽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특히, ‘한 눈으로는 현상을 다른 한 눈으로는 그 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가를 보아야한다’던 그의 말에는 수십 년 간의 중동분쟁에 대한 경험이 농축되어 있었다.

9월 10일

28개 회원국 5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AIPCE 연례회

회원국 대표들은 가볍게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오전에 다시 한 번 미팅을 가졌다. 거기서, AIPCE 회원국인 스위스가 차기 연례회의 유치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의 막이 올랐다. 1부에서는 <변화하는 언론 속에서의 언론평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주로, (1)‘언론’의 개념이 분명할 때는 언론평의회 of 본질도 분명했다.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해야만 하는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여전히 평의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이것은 “인터넷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 (3)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언론평의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난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어진 2부 주제는 <사이버 시대에 사생활이 남아 있는가?>였는데, 여기서는 (1)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생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2)규제기관들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사이버 거대기업에 맞서 사생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좌측)



이라크, 파키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활동 중인 언론인의 안전성 제고와 면책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중인 유네스코 Ms. Tarja Turtia

활 보호 전쟁에서 패하고만 있는 것인가? (3)우리는 그저 인터넷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폭로에 놀라고만 하고 있는 중은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3부 주제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1)적법절차는 여전히 가능한 것인가? 재판의 공정성이 트위터나 포털에 의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가? (2)공정한 보도를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 (3)법원은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해야만 하는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4부 주제는 <투명한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였는데, 여기서는 (1)첨단기술이 기밀자료를 폭로하고 있는가? (2)간접광고와 콘텐츠 마케팅이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

한 위협인가? (3)우리의 언론평의회가 페이스북 세대에 적합한가? (4)언론윤리규범이 오늘날의 기자들에게도 적합한가? 등에 대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첫날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저녁에는 지중해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카이사레아 크루세이더즈(Caesarea Crusador's) 식당에서 만찬이 있었다. 여기서는 물밀 유치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이 한국의 제16차 AIPCE 연례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다른 유럽대륙의 대표들은 우리가 다가가도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들은 AIPCE가 세계언론평의회가 아니라 유럽언론평의회이기에 회의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국 개최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

습을 보였다.

9월 11일

연례회의 둘째 날, 5부에서는 <분쟁지역에서의 보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2002년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Daniel Pearl을 추모하며 (1)인간의 삶과 권리의 수호자로서의 종군기자 (2) 극단적인 상황 하의 취재에서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 (3)우리는 UN이 기자에 대한 표적살인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선언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6부는 <남용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독자평(댓글)>이 주제였다. 여기서는, New Israel Fund가 행한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폭력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7부에서는 <언론의 자율성>을 주제로 하여 (1)언론에 대한 법적인 규제 제도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가? (2)모든 평의회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있는가? (3)출판업자들과 언론인들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데도 자율규제 메커니즘은 과거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7부에 걸친 이틀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차기 연례회의 개최지 선정에 대한 토

론이 있었다. 가장 먼저 유치신청을 했던 스위스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개최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 언론중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차기 연례회의의 개최의사를 표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내년도 제16차 AIPCE 연례회의의 서울 유치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중인 경기중재부 홍숙영 위원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개최 희망국으로 우리만 남게된 상황이니 당연히 AIPCE 차기 연례회의는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의 프레젠테이션 후 우려했던 대로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AIPCE 정체성 문제를 표면화했고, 뒤이어 벨기에가 브뤼셀에서 차기 연례회의를 열겠다고 나서게 됐다. 참고로 작년 AIPCE 연례회의가 같은 국가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바 있다. 손영준

위원이 한국에서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PCE 차기 연례회의가 개최되면 AIPCE가 국제회의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다시 제의하는 상황에서 회의는 차기 개최국을 확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고 말았다.



페이스북 등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 중인 서울 제3중재부 손영준 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공식회의가 끝난 후 저녁만찬에서 나온 유럽지역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만 아시아일 뿐 유럽지역과 가깝고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유럽신문협회, 유럽방송협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해오고 있어 심정적, 제도적으로는 유럽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번 연례회의의 호스트가 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었다. AIPCE 차기 연례회의의 개최지로 거명된 브뤼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주 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그들은 한국의 적극적인 유치희망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한국이 AIPCE를 초청하고 아시아 몇몇 나라의 신문평의회를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 기꺼이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9월 12일

AIPCE 참석자 모두 함께 이스라엘 신문평의회가 주관하는 예루살렘 투어에 나섰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공존하는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은 슬픔을 머금고 있는 듯한 도시였다. 인간의 욕망과 갈구가 곳곳에 묻어 있는 듯한 도시였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했지만 속으로는 들끓고 있는 도시 같았다. 예루살렘 투어를 마치고 다시 힐튼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먼저 벤구리온 공항에서 내려 귀국길에 올랐다.

